

인도네시아

Indonesia

6. 식음료업체연합, 규제완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 필요성 주장

자카르타지사

- ▶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(Gapmmi)은 올해 자국 생산 식음료산업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8.2~8.5% 증가하고 매출은 1,400조 루피아(약 125조 8,600억원)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 이는 수입 증가에 따른 국산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작년 말 예상했던 9% 증가보다 다소 하향된 수치이다.
- ▶ 현지 최대 시사주간지 뎀뽀 1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식음료업체연합은 올해 식음료시장이 수입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기업은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, 더 이상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식음료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. 현재 인도네시아 다수의 기업 이익이 감소추세에 있지만, 아직까지 부채율은 10%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.
- ▶ 식음료업체연합은 정부의 별다른 정책지원이 없어 국내 식음료산업의 경쟁력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. 정부의 식음료품 원료에 대한 수입규제 등은 오히려 국내 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어 원당이나 소금 등 원료의 수입규제가 완화된다면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.
- ▶ 식음료업체연합은 최근 국내 농산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식음료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, 식음료업체들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.
- ▶ 인도네시아는 한국 농수산물식품의 9위 수출대상국으로 '16년 기준 수출금액은 170백만불이며, 전체 수출액 8,596백만불의 2%를 점유하고 있다.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조제품(34.6백만불), 라면(11.3), 기타음료(4.1), 김(3.3), 배(3.2), 팥이버섯(1.2) 등이 있다.

| 인도네시아에서 판매중인 한국 농식품 |



* 출처 : 자카르타경제신문 2017.1.12

시사점

-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(2억5천만명)로 인구가 많은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인도푸드 등 국내 식품제조회사들과 코카콜라, 유니레버, 헤인즈 등 글로벌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 공장을 설립, 확대하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.
- 한국식품이 이러한 인도네시아 국내생산 식품 및 기타 경쟁국가 수입식품들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안전성, 품질, 다양한 마케팅활동 등을 통한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.